

올미년, 인천이 새롭게 일어난다

剋亂新興

극란신흥

우리는 2015 올미년 시의 시정철학이 될 사자성어(四字成語)로 '극란신흥'(剋亂新興)을 선정했습니다. '어려운 인천시정을 잘 이겨내서 새롭게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인천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누적된 재정문제로 아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와 시민이 허리끈을 동여매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 뒤에 오는 행복은 더 달콤합니다. 시민들의 애정과 저력으로 인천은 난관을 헤치고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2015! 웃어라 인천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인천에서 최초로 발행한 문예잡지
습작시대(習作時代)

길에서－제물포 풍경

김기림(1939)

〈기차〉

모닥불의 붉음은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는 금벌레처럼
기차는
노을이 타는 서쪽 하늘 밑으로
빨려갑니다.

〈인천역〉

‘메이드－인－아메리카’의
성냥개비나
사공의 포켓에 있는 까닭에
바다의 비린내를 다물었습니다.

〈조수〉

오후 두 시...
머언 바다의 잔디밭에서
바람은 갑자기 잠을 깨어서는
쉬파람을 불며 불며
검은 조수의 떼를 몰아가지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고독〉

푸른 모래밭에 자빠져서
나는 물개와 같이 완전히 외롭다.
이마를 어루만지는 찬 달빛의 은혜조차
오히려 화가 난다.

〈이방인〉

낮익은 강아지처럼
발등을 핥는 바다 바람의 헛바닥이
말할 수없이 시롭건만
나는 이 항구에 한 번도 불룩한 지갑도 호적도 없는
거북이와 같이 징글한 한 이방인이다.

〈밤 항구〉

부끄럼 많은 보석장사 아가씨
어둠 속에 숨어서야
루비 싸파이어 에메랄드...
그의 보석 바구니를 살그머니 뒤집니다.

〈파선〉

달이 있고 항구에 불빛이 멀고
축대 허리에 물결 소리 점잖건만
나는 도무지 시인의 흥내를 낼 수도 없고
‘빠이론’과 같이 짓을 수도 없고
갈매기와 같이 슬퍼질 수는 더욱 없어
상한 바위틈에 파선과 같이 참담하다.
차라리 노점에서 임금(林檎:능금)을 사서
와락 와락 껌질을 벗긴다.

〈대합실〉

인천역 대합실의 조려운 ‘벤취’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손님은 저마다
해오라비와 같이 깨끗하오
거리에 돌아가서 또 다시 인간의 때가 물을 때까지
너는 물고기처럼 순결하게 이 밤을 자거라

김기림 시집 ‘태양의 풍속’에 수록



태양의 풍속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8 신년사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인천을 품은 책들

16 니하오 요우커 ① 부평지하상가

22 섬 운영도

26 인천 Residence 수봉다방

30 민선 6기 공약 실천 인천시민 원탁토론 개최

34 포커스 만화로 보는 2015 달라지는 시민생활

40 까치발로 본 인천 ① 동인천북광장 → 수도국산

44 Culture Info 새해맞이 풍류 즐기기, 우리 가락 매력에 흠뻑!

4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노점 요식업 영업 잠정 허용 외

48 News Brief 2014 주거복지정책 최우수 기관 선정 외

52 의정뉴스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여 대통령 표창 외

54 생활정보 청소년 활동 돕는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외

57 인천 사는 이야기 문학산에서 바라본 세상 외

58 모닝커피 한잔 송진구 명품전략연구원 원장



표지이야기

책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아직까지 대체 불가능한 지식 근력의 원천이고요. 2015년 인천은 책과 함께 출발합니다. 책과 함께 더욱 따뜻하고 삶의 여유가 넘치는 인천을 기대합니다. 2015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수도 인천’의 해입니다.

인천십오년 일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3

contents

10



16



26





인천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잉크’(Inch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social.incheon.go.kr)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페이스북(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incheonblog.kr)

인천 날씨 ☀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와 ‘굿모닝인천’을 통해 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120incheon

117번 버스에 적혀 있는 S자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인천교통공사 담당자(424-8338)에게 문의한 결과 인천에서 인가된 버스가 아닌 서울에서 인가된 버스라는 의미의 S마크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은혜의 집 동절기 월 평균 난방비가 1천500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4년 전에 동결되었고요, 그나마 그것도 늘 마이 너스입니다. 도와주세요.

시 사회복지봉사과 담당자(440-2933)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보조지원금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출근 시간에는 버스가 빨리 오게 해야 하지 않나요? 9시까지 출근인데 9시 21분에 도착이라니.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교통 상황에 따라 버스 도착 시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불편이 있으셨던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굿모닝인천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시고 미리미리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복지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접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비용은 무료이나 2만5천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우리의 얼굴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이들이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관광안내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관광에 대한 안내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나 인천투어 홈페이지(itour.visitincheo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 문화체육관광 → 인천관광 관광 책자를 신청하시거나, 시 관광진흥과에 직접 방문하시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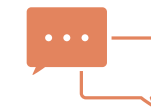
자유공원 올라가는 길이 조심스러워요. 겨울철이니 미끄럽지 않도록 잘 정비해주세요.

자유공원이 언덕에 있다 보니 가는 길에 계단과 경사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잡고 올라가실 수 있는 난간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밤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도 설치하였습니다. 겨울철 눈에 대비해서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리고, 직원들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전과 관련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구도심 우리 동네

독자 이황숙(46·남구 송의동)



이황숙님은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살아 온 인천토박이입니다. 15년째 남구 송의동에서 스마일부동산을 운영하며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남다른데요.

지인이 ‘굿모닝인천’을 추천해주어 집에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이야기,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유익하고 정겹습니다. 관광명소 뿐 아니라 구도심 이야기도 자주 나와서 반갑고요. 12월호에서는 ‘기부와 봉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인상 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무심코 바빠 살아온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가슴 따뜻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삶을 꾸려가고 있는 남구는, 구도심이라 문화적인 것은 조금 뒤떨어질지 몰라도 역사가 흐르고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정겨운 동네입니다. 앞으로 문화공간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 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2 0 1 5

어제의 수면 아래서 ‘오늘’ 위로 뜨겁게 솟아오르다

201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일은 언제나 설렘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기에, 새해에는 더 새롭고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우리시를 통한 대중국 교역비중이 막대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인천의 새로운 도약으로 확실히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2015년 우리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심호흡 깊게 하고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은 더 찬란히 빛날 내일의 희망입니다. 인천의 꿈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어제의 수면 아래서 '오늘' 위로 뜨겁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두 손 불끈 쥐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합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영종도에서 바라 본 일출



“
인천의 힘찬 날갯짓을
기대해주십시오
”



QR코드를 찍으면
신년사 전문을 보
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취적이고 평화로운 청양(靑羊)의 기운은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기운이 우리 인천시와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천의 창조적인 발전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기회를 인천의 새로운 도약으로 확실히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장기적 경제발전동력인 로봇, 자동차, 바이오, 관광, 마리나, 서비스 등 8대 전략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세계 책의수도, 세계교육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MICE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역동적인 세계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 IFEZ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통하여 ‘인천SW융합 BI-PLEX’를 구축해 글로벌 창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우커’들을 인천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힘쓰겠습니다. 인천의 근대문화자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해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신·구의 조화를 이뤄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이 반영된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이 확정됨에 따라 300만 시민의 편안한 KTX 이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천의 교통망을 개선하면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시민원탁토론회의’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한 것처럼, ‘시민행복정책자문단’과 ‘공약시민점검단’ 등 다양한 채널을 두고 소통해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비상을 위한 인천의 힘찬 날갯짓을 기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7대 인천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은 우리 인천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시 출범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며, 300만 인천시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7대 인천시의회는 시민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5명 시의원 전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안전’, ‘봉사’, ‘신의’의 3대 의정방향에 따라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이 인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짧은 4년이 아닌 향후 30년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희망찬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도록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롭게 비상하는 인천의 빛이 신도심은 물론 원도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봉사하는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담은 그릇임을 명심하고, 인천과 시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재정위기 극복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부실해진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 우리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장막이 있다면 모두 걷어내고, 인천이 일취월장하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노경수



“
희망과 믿음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



QR코드를 찍으면
신년사 전문을 보
실 수 있습니다.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

문학 속에 비친 인천은 어떤 모습일까? 인천은 서울과 가깝고 시대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온 몸으로 겪어 왔기에 문학에 담을 소재가 무궁무진한 도시다. 일제 강점기에는 개항과 신문물로, 서울의 휴양지로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노동문제의 중심지로, 분단과 성장의 뒷면인 도시빈민들의 궁핍한 이야기까지, 인천은 그 자체가 이야기의 도가니였다. 2015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다. 근대 문학 속에서 인천을 그려낸 작품들과 그 속에 인천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들여다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온다. 잠
간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어 보이는 노
동자들이 축항을 둘러싸고 별매같이 와
와하며 떠돌았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나라인지 타국인지 모르겠구나.”

자동차는 사람이 장날 같이 북적되는 해안을 한 바퀴
돌아서 만국공원으로 달려 들어갔다

개항, 근대화의 요람

개항으로 근대문물의 첫 도착지가 된 인천. 신문물은 모던함을 추구하
며 새로운 감수성에 목말라 하던 당시 문인들에겐 좋은 문학의 소재였
다. 신소설 최초의 작품인 이인직의 ‘혈의 누’(1906)에서는 이미 윤선
(輪船)으로 가득한 인천항의 모습이 등장한다.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
인천항에 떠있는 윤선을 처음 본 소감을 이렇게 적는다.

“옥련의 눈에는 모다 처음 보는 것이라. 항구에는 배 뚝대가 삼대 들어
서듯 하고 저자거리에는 이칭 삼칭집이 구름속에 들어간 듯 하고 지네
같이 기어가는 기차는 입으로 연기를 확확 뿜으며 풍우같이 달아나고
넓고 곧은길에 갔다왔다하는 인력거 바퀴소리에 정신이 얼떨떨한데.”

인천항은 일찍이 조선의 개혁을 꿈꾸었던 개화파에게 꿈의 항구인 동
시에 좌절의 망명항이기도 했다. 신소설 작가 이해조는 ‘제국신문’에 연
재하던 ‘빈상설’(1908)에서 개항으로 변해버린 인천을 비판했다. “여기
가 어디냐? 우리나라인지 타국인지 모르겠구나.”라고 적고 있다.

주요섭이 쓴 장편 ‘구름을 잡으려고’(1935.2.17.~8.4, 동아일보)는 조
선인 최초로 하와이로 떠난 이주노동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소설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근대화의 요람이 된 제물포항을 ‘위험한 출입문’으로
기록한다.

모더니즘 문학의 산실

근대도시 인천은 모더니티의 전시장으로 시대적 감각에 민감한 많은
문인들이 인천으로 몰려왔다. 한국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은 모두
세 편의 인천 시를 남겼다. 1926~27년 발표한 ‘슬픈인상화’, ‘내맘에
맞는 이’, ‘오월소식’ 등이다. 정지용의 시편들이 ‘축항의 기적소리’(슬
픈인상화)로 가득한 인천을 경유하면서 가다듬어졌음을 보여준다. 인
천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나 소설들은 미지의 세계 혹은 서구 문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구인회의 작가 이태준

도 단편 ‘밤길’(1940)에서 인천을 형상화했다. 김기림은 그의 시 ‘제물포풍경’(1939)에서는 인천항을 ‘부끄럼 많은 보석장사 아가씨’로 묘사했다. 김소월을 비롯해서 박팔양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시인들은 당시 인천의 모습을 낭만적 동감과 모던한 감수성으로 표현하며 아름다운 시어(詩語)들을 남겼다.

근대적 휴가와 관광의 도시로

수도인 서울과 가깝고 바다가 있던 인천은 새로운 여가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신천지’가 된다. 1917년 월미도와 내륙을 잇는 방파제가 완공되고 1923년 ‘월미도유원회사’가 설립되면서 인천은 관광지로 본격 개발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월미도와 만국공원(자유공원)은 온천과 꽃놀이, 휴식 장소였다. 근대문학 속에서 인천은 경성 학생들이 소풍을 오는 곳이거나, 여름철 피서지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별장지대로 그려졌다. 최찬식은 1913년 발표한 ‘해안’(1914)에서 인천항의 석양풍경을 일본공원과 어우러지는 경치로 표현했다.

염상섭은 ‘이심’(1928)에서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이렇게 묘사했다. “자동차는 사람이 장날 같이 복잡되는 해안을 한 바퀴 돌아서 만국공원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나 오 늘은 여기도 사람의 떼로 우글거린다. 중등학생의 떼며 여학생들의 행렬도 앞에 보인다. 아마 이 학생들도 음악회 구경하느라고 몰려 들어오는 모양이다.” 이효석의 주리야(1933), 이광수의 사랑(1938)에서도 인천의 서정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이면’ 그려내다

개항이후 인천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일거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가 된다. 특히 1930년대 일제가 대륙 침략을 감행하고자 인천항 근처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면서 공장도시로 발전한다. 강경애의 ‘인간문제’(1934)는 이런 시대의 변화와 노동자들의 모습, 노동자의 도시 인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녀는 작품에서 인천을 대공장의 가혹한 노동착취



와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 운동이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현장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강경애가 ‘인간문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삼은 장소는 바로 대동방적이었다.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쏟아나온다. 잠깐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어 보이는 노동자들이 축항을 둘러싸고 별떼같이 와와하며 떠들었다. 그들은 지게꾼이 절반이나 넘고 그 외에 손구루마를 끄는 사람, 창고로 쌀가마니를 메고 뛰어가는 사람, 몇 명씩 짝들 지어 목도로 짐을 나르는 사람,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한 뭉치가 되어 서로 비비며 돌아갔다.”

식민시대의 열악하고 비참한 노동자들의 삶과는 다른 대척점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일제 식민지 수탈의 주요한 창구였던 ‘인천미두취인소’는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의 집결지였고 그들은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미두취인소를 다룬 작품은 채만식의 ‘당랑의 전설’(1940)과 이광수의 ‘재생’(1923)이다. 채만식의 회곡 ‘당랑의 전설’에서는 인천미두취인소 내부의 모습을 숨막히게 묘사한다. “포차를 중심으로, 아래층 중앙 정면의 일부분만 보이는 큰 목재 양옥, 포치의 앞기둥엔 인천미두취인소라는 간판이 붙었다. … 이러한 몇 가지의 드높은 아우성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 규성(고함)들이 실상 무슨 소린지 언뜻 분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다수한 군중의 와글와글 흥분하여 떠들고 부르짖고 하고…”

인천을 품은 책들



현대문학에 나타난 인천

전쟁 직후 인천은 북한이나 중국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도시로, 산업화 시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산업지대로 변모한다. 도시는 급팽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이 도시에 삶의 터전을 꾸렸다. 현대문학에 나타난 인천의 모습은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그리고 있는 ‘바닷가 소년’(1963), ‘포구의 황혼’(1967)이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과 투쟁을 그린 작품들으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 ‘씻물처럼’(1987), ‘내일을 여는 집’(1981) 그리고 이주민들의 소외된 삶을 그린 소설 ‘중국인의 거리’(1979), ‘중국어 수업’(2010) 등이 주를 이룬다.

지역의 작가 이원규는 대표적 단편 ‘포구의 황혼’을 통해 인천 연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소래 어민들의 현재적 삶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제기했다.

인천 강화가 고향인 한남규의 ‘바닷가 소년’은 피란 생활의 궁핍 때문에 그날그날을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바닷가 서민들의 생활상을 천진한 아이의 시선으로 살살히 비추고 있다. 그는 작품속에서 강화와 인천을 따듯하게 쓰다듬고 있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인천 북성동 일대의 중국인 거리가 섬세하게 복원되어 있다. “시의 정상에서 조망하는 중국인 거리는, 검게 그을린 목조 적산가옥 배란다에 널린 얼룩덜룩한 담요와 레이스의 속옷들은, 이 시의 풍물이었고 그림자였고, 불가사의한 미소였으며 천장의 한쪽 손에 얹혀 한없이 기우는 수온이었다. 또한 기우뚱 침몰하기 시작한 배의, 이미 물에 잠긴 고물이었다.”

소설가 김중미의 ‘깡이부리말 아이들’(2003)은 인천에서도 가장 낙후된 만석동이 배경이다. 이곳 불량학생들이 인간적 유대를 통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가난한 동네가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인천의 섬이나 항구, 도시 변두리의 삶을 시와 소설로 형상화한 성과 ‘새떼들에게로의 망명’(1981) ‘협궤열차’(1982), ‘황금빛 모서리’(1983), ‘고래를 기다리며’(1984), ‘지금도 그 별은 눈 뜨는가’(1987), ‘내 마음의 협궤열차’(2000), ‘먹염바다’(2005)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인천, 전자책 시대를 열다

시 간행물 네이버, 구글, 예스24, 알리딘 등에 게재

책이 종이책에서 전자책 시대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이보다는 모니터를 통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구매 및 소비량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의 경우 전자책 시장이 종이책을 앞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시도 시정홍보지 ‘굿모닝 인천’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이를 대형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서점 등에 게재, 인천을 알리는 획기적인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제작대상은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문묘소식지 ‘인천 나우’, 단행본 등이고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대형포털 사이트와 I-books, 예스 24, 알리딘, 인터파크, 인터넷 교보문고 등 국내 인터넷서점 등에 등록 및 게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로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전자책의 발간으로 대형포털사이트와 인터넷서점에서 ‘인천’ 키워드만 넣어도 인천시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진다. 우리시는 앞으로 전자책에 대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동영상과 보이스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보이스 기능은 책읽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멀티콘텐츠의 지원으로 우리시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과의 연계 및 링크도 가능해져 전자책이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미디어의 게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길은 지하로 통한다!

‘세계도 인정한 부평지하상가로 오세요~’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한류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여기에 쇼핑관광까지 더해지면서 인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遊客)’가 크게 늘었다. 이에 우리시는 이들 요우커를 흡수하기 위한 마케팅을 시 핵심 10대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인천의 매력 포인트 가운데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넘어 세계기록으로도 인정받은 부평지하상가는 인천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도 원정쇼핑을 오는 ‘핫 플레이스’다. 평소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과 부평이 고향인 인천시민이 만나 부평지하상가 나들이에 나섰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기록 인증서



중국인 유학생 장단단(24·인천대)

부평 출신 인천시민 성열(42)

출구 만 31개, 최다 점포 세계기록 인증

부평역 일대, 부평역지하상가를 비롯해 신부평·부평중앙·부평대아·부평역사 모두 다섯 구역으로 이뤄진 부평지하상가는 세계도 인정한 거대한 지하 쇼핑세계다. 하루 유동인구만 30만 명, 출구 만해도 31개, 3만 1천600㎡ 면적에 다양한 업종의 1천408개 점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수’ 부문에서 세계기록 인증을 받기도 했다.

차디찬 겨울바람을 헤치고 들어선 부평지하상가는 공기부터 훈훈한 그야말로 별천지다. 지하 골목골목에 즐비하게 늘어선 수많은 상점들은 눈을 휘둥그레하게 한다. 평일 오전,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를 뿜어낸다.

“중국에도 지하상가가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예요. 평소에도 옷이나 신발 등을 사기 위해 부평지하상가를 자주 찾곤 했어요.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고 즐거워요.” 장단단(24)씨는 2010년에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으로 와 인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에게 있어 부평지하상가는 젊은 여성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즐겨찾기 명소다. “지금은 지하상가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지만 제가 중·고등학생 때 만해도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도 유행하는 청바지, 신발 등… 웬만한 것은 다 살 수 있었지요.” 부평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 간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곳에서 살아 온 성열(42)씨에게 부평지하상가는 지나간 추억과 현재의 일상이 흐르는 특별한 공간이다.



노동자들의 상가에서, 트렌드 세터들의 명소로

부평지하상가는 1986년 그 역사를 시작했다. 처음 대피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냉난방과 환기 시설이 미흡하고 일반 형광등과 백열등으로 조명을 밝혀야 할 만큼 열악했다. 하지만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비롯해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번성해 90년대부터 전성기를 누렸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시계, 신발 등 잡화를 파는 가게 10여 군데가 있었어요. 누가 이 구석진 지하를 알고 찾아왔겠어요. 낮 시간에도 상인들이 모여 파리만 날리고 앉았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인근의 주머니 가벼운 노동자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모여들고, 명절 때면 선물을 사기 위해 줄을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부평역지하상가의 조강목 대표는 이곳의 터줏대감이다.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부평에서 카메라를 팔면서 젊은 날의 꿈을 일구었던 그때 그 시절을,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부평역지하상가는 지금 변화 속에 있다. 상인들 스스로 힘을 모아 2001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상가시설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손님들을 맞고 있다. 이번 공사에선 시대 흐름에 맞춰 모유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을 비롯해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외국관광객 유치 홍보실과 외국어 방송설비를 마련해 외국인 쇼핑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상가 내의 상인도 상점도 가게에서 파는 아이템도 한층 젊어졌다.

“늘어나는 대형쇼핑몰과 경쟁하려면 바뀌어야 해요. 부평역지하상가를 중심으로 단순한 지하상가가 아닌 원스톱으로 먹고 쇼핑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하도시를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국제적인 쇼핑명소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대한 지하세상 안에는
최신 유행을 달리면서도
값싸고 실속 있는 제품들로
쇼핑욕구를 자극하는 상점이
준비하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쇼핑 천국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싶을 만큼 거대한 지하세상 안에는 최신 유행을 달리면서도 값싸고 실속 있는 제품들로 쇼핑욕구를 자극하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매장은 화장품 가게다. 문을 열고 처음 맞이하는 백화점 일층 매장이 그렇듯 부평역지하상가 중심에는 화장품 가게가 포진해 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사용하는 화장품, 드라마 여주인공이 바르고 나온 립스틱 등은 요우커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여행 경비 대부분을 화장품 쇼핑에 할애할 만큼 한국 화장품을 좋아해 최근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장단단씨도 브랜드를 줄줄 읊 만큼 한국 화장품을 좋아한다. “옷과 화장품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값싸고 좋은 제품들을 파는 가게가 많아서 좋아요. 쇼핑상가가 정말 크고 가게도 물건 종류도 아주 많아요.”

지상 밖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부평지하상가는 지하철 환승구간인 동시에 지상 밖 쇼핑거리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리저리 쇼핑을 다니다 지하상가 끝에 다다르면 밖으로 나가 서점에 가고 극장에도 갔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극장은 좌석제가 아니라서 당시 인기 있던 블록버스터 영화를 서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함께 갔던 여자친구에게 엄청 혼이 났었지요.” 성열씨의 추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부평지하상가와 ‘부평 문화의 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늘 젊은 에너지가 넘친다.

최근에는 개성 강한 스트리트 패션 숍,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상점 등이 곳곳에 들어서며 거리에 새로운 표정을 입히고 있다. 인천 멋쟁이들에게 최고라는 평가를 받던 ‘패션1번지’는, 지금 세계적인 패션명소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 ‘즐거찾기’에 추가 할, 부평지하상가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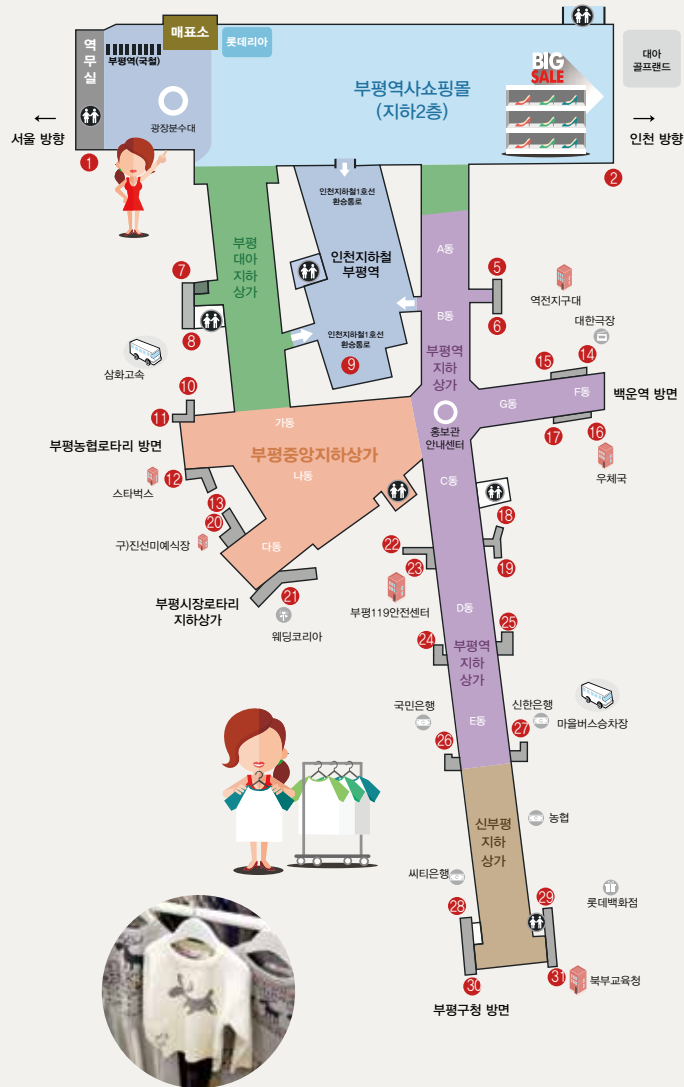
이곳에선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가 않다. 매장을 힐끗거리며 아이쇼핑하다 직접 입어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다 보면, 하루도 모자란다. 패션을 좀 안다! 하는 사람이라면 부평지하상가를 지나칠 수 없다. 또 아찔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에 수많은 상점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안내표지판을 교체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해 길을 헤맬 염려가 없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톡톡 튀는 스트리트 패션 숍, 레어아이템

‘옷 좀 입는 사람’이라면 이 가게를 스쳐지나가기 힘들다. 스트리트 패션 편집 숍 레어아이템(Rare Item)은 이미 패션리더들에게 입소문이 난 패션 명소. 젊음의 감성을 자극하는 캐주얼 의류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 브랜드 제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제품이 트렌디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곤 해요. 아시아경기대회 때도 외국선수들이 많이들 와서 좋아했어요.” “와~ 그래요? 제품 좀 추천해주세요. 이 모자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최신 유행을 달리는 트렌디한 소품과 옷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후드 티가 2만원부터,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영업 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위치 : 부평지하상가 A동 27호 · 28호
문의 : 010-6564-0250



마음을 잇는 패밀리룩, 퍼니 러브

“와. 예쁜 옷들이 많아요. 여기, 아이 옷 좀 보세요. 정말 귀여워요.” 거울에 비추어 보고,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든 여기는 패밀리룩 전문점 퍼니러브(Funny Love). 가게 안에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옷들이 가득하다. 제품은 우리 가족이 함께 입는다는 생각으로 100% 자체 제작해 가치 있게 만들었다. 또 단순히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라, 패턴과 디테일 등에 통일감을 주어 같은 듯 다른 듯 세련되게 제작했다. 가격은 3인 한 가족 세트가 8, 9만원 선.

영업 시간 : 오전 11시~오후 10시 위치 : 성일로지하상가 A동 41 · 42호
문의 : 505-5057



골라 끼는 재미가 있다, 디자인 스킨

진정한 멋쟁이라면 휴대폰 하나에도 센스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지하상가 안을 거닐다 보면 아기자기한 소품 숍과 기프트 숍들이 눈길을 끈다. 휴대폰 액세서리점 디자인스킨(Design Skin)도 한 번쯤은 들리게 되는 곳이다. “색감도 디자인도 예쁘네요? 좋네요.” 다채로운 색감과 트렌디한 디자인 감성을 담은 제품들은 눈으로 대충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영업 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위치 : 부평지하상가 C동 12호
문의 : 502-5073

부평지하상가의 역사와 함께한, 두 방울

속옷가게 ‘두 방울’의 주인 이남주(59)씨는 부평지하상가가 시작된 86년에 가게 문을 열어 지금껏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처음엔 하루에 400원짜리 스타킹을 7개나 팔았나. 하루 일당이 3천원이 채 안됐으니까. 길다면 긴 세월인데, 어찌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세월은 흘러 흘러 30여 년이 지났고 1칸짜리 가게는 2칸으로 늘어 여전히 성업 중이다. 바로 앞에 경쟁하듯 들어선 같은 업종의 가게는 몇 년을 채 못 갔지만, 단골들이 꾸준히 찾는 아주머니의 가게는 여전히 건재하다.

영업 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위치 : 부평역지하상가 C동 17 · 18호
문의 : 527-4173

백화점 부럽지 않은 퀄리티, 아벨

저렴하고 실속 있는 아이템들을 쏟아내는 지하상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성복 매장 ‘아벨’ 앞에 서면 백화점에서도 볼 법한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어가 시선을 붙잡는다. 제품 역시 고급스러운 원단에 세련된 핏과 디자인이 돋보인다. “자~ 드디어 남성분을 위한 쇼핑 공간에 왔습니다. 한번 입어 보세요. 맞춤옷처럼 잘 어울리는데요?” 코트가 15만원 선으로 가격대는 좀 있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찾는다.

영업 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위치 : 부평역지하상가 F30 · 31호
문의 : 521-0176



쇼핑 고수들의 아지트, 부평지하상가

부평하면 떠오르는 부평지하상가는, 부평역지하상가를 비롯해 신부평 · 부평중앙 · 부평대아 · 부평역사모두 다섯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3만 1천600㎡ 면적에 다양한 업종의 1천408개 점포가 모여 있어 ‘단일면적 최대 지하상가 점포수’ 부문에서 세계기록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의류, 신발, 휴대폰, 전자제품, 화장품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40여 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여 교통도 편리하다.

부평역지하상가 523-9991 www.bpsm.co.kr 매월 1, 3주 화요일 휴무, 부평중앙지하상가 523-9992, www.bjus.net 매월 2, 4주 화요일 휴무, 신부평지하상가 www.shinbupyeong.com, 527-0460, 매월 1, 3주 화요일 휴무, 부평대아지하상가 513-4911 매월 2, 4주 화요일 휴무, 부평역사소핑몰 www.bupyeongshopping.co.kr, 515-0151

한 달 중 사흘만 섬이 되는 섬, 운염도

목마름에 퍼줄을 맞추다

글·사진 이현주 자유기고가



섬을 찾기 위해 뱅뱅 돈다. 지도에는 있지만
내비게이션에는 잡히지 않는 길 탓에 미아가 된다.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섬 운염도는 어미 속태우는 짓궂은 아이
같은 섬이다.

섬, 숨바꼭질하다

어미는 아이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영종대교를 건너와 ‘동강리’ 마을을 찾기까지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을은 이별을 예견했는지 모르겠다. 영종대교는 마을을 두 동강냈다. ‘동강리’ 마을을 지나면 한국전쟁 시 남과 북을 잇던 철제다리를 연상케 하는 철교를 만날 수 있다. 이 다리를 건너면 50년대로의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빨간 흙먼지 옴짝 쓰며 자동차로 달리는 비포장길은 엉덩살 처진 어미에겐 험한 길이다. 니체는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편다’고 했다.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차에 탄 사람들을 흔들어 놓던 길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국적 풍경을 선물하며 이방인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맘놓고 노닐던 청둥오리 떼는 이방인의 차 소리에 물살을 튕기며 힘차게 날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일렁이는 호수는 아이 찾는 어미의 시름을 내려놓게 한다. 바닷바람이 매섭다. 바람이 불때마다 갈대가 서걱거리며 눕는다. 바다가 일렁이듯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이 춤추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마른바람 탓일까? 자연이 만들어낸 ‘테셀레이션’(한 가지 이상의 도형을 이용해 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하게 덮는 것)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멋진 그림을 그렸다. 형이상학적인 모양은 때론 무슨 메시지를 던지듯 아름다운 규칙을 만들어 낸다. 작은 퍼즐이 모여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내듯 이곳 역시 작은 조각이 모여 자연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바닷물을 막은 탓에 바닷물은 증발하고 갯벌은 짙게 갈라졌다. 갈라진 갯벌이 만들어낸 천연 작품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가두었던 물이 증발하고 바다 밑바닥은 퍼즐을 남겼다. 그 사이사이 빼꼼히 비집고 나온 칠면초는 빨갭게 얼굴을 내민다. 갈라지는 메마름 속에서도 생명은 자란다.

섬, 세상의 등을 밀다

한가로이 칠면초를 뜯던 흑염소 떼가 마을로 길손을 인도한다. 차가운 철교 아래 다섯 가구가 모여 사는 운염도는 애를 먹이며 그렇게 어미의 품에 안겼다.

바로 앞 청라국제도시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 듯 위협하고 있지만 이곳은 하늘을 의지해 살아가는 마을이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기도 하지만 짠 바닷물이 올라오는 탓에 대부분의 가구가 빗물을 받아



생활한다. 마을버스도 없다.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이곳의 시계는 고장 난 듯 멈춰 있다.

이곳은 불과 60년 전만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 대부도에서 더 들어간 ‘천감도’에서 살던 마음 맞는 세 집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유인도가 되었다. 세 가구는 이곳에 흙벽돌로 길게 집 한 채를 지어 칸만 막아 같이 살았다. 아무도 살지 않던 버림받은 땅 운염도에 들어와 낮에는 낚시를 팔며 밤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외로움을 밝혔다.

운염도를 유인도로 바꾼 개척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유일한 자손 양정복씨 부부가 이곳을 지키고 있다. 섬의 겨울은 유독 길다. 겨우내 땀감을 준비하러 양정복씨 부부는 겨울 산을 해낸다. 겨울이 오기 전 쟁여놓은 무는 겨우내 좋은 반찬거리가 된다. 무청은 시래기기가 되어 바삭 마른 송어 밑에 깔려 자글자글 조려져 겨우내 반찬으로 오를 것이다. 물 빠진 뿔발에 꽂아진 나뭇가지는 천연덕장이 되어 송어, 망둥이가 이곳에서 말려진다. 배타고 잡아온 물고기와 소리는 그들만의 바다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섬에 불쑥 손님이 찾아와도 이곳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는다. 집 앞 바다에 메달아 놓은 그물망을 올려 바다향 가득한 밥상을 한상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극진한 상처를 뒤로 하고 야박하게 운염도 주민들은 길손의 등을 밀다.

“냉큼 가슈. 언능언능...”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로 섬은 육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름은 ‘운염도’다. 육지인 섬은 대사리 기간 3~4일간은 물에 잠겨 세상과 고립된다. 사리기간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섬사람들은 야박하게 내쫓는다. 서두르지 않으면 사흘간 이곳서 오가지 못하고 갇히기 때문이다. 차를 버리고 산으로 오르거나 동네 사람들 배를 빌려 나가야 하기에 사리 때 찾아오는 손님에겐 정을 쉽게 주지 않는다. 짧은 이별을 위한 주민들의 배려다.

섬은 외로워 육지가 되었다. 육지가 된 섬은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개발의 숲에 둘러싸여 가는 섬은 더욱 외로워졌다. 섬은 그래서 아이처럼 가끔 심술을 부린다. 한 달 중 오롯이 사흘만 섬이 되는 시간에 그 누구도 맞지 않는다. 운염도가 세상과 손잡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다. 운염도는 섬일 때 그 이름을 잃지 않기에...

구도심, 문화와 놀다

인천 구도심에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개발에 소외되어 주민이 떠난 빈 공간을 예술가들이 들어가면서 창작활동 공간으로 재생하고 있다. 특히 남구는 지역의 빈집을 젊은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지역에 활기도 불어넣어 마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빈집 활용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

지난해 12월 10일 인천 남구 송의동 수봉영산마을에 위치한 ‘수봉다방’에서는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추운 겨울 이웃주민들과 함께 밥을 나눠먹으며 소통하는 ‘밥먹고 가세요 #1 부대찌개’ 행사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예술가 입주공간 ‘그린빌라’에 소속된 청년작가 박혜민(30) 씨가 기획했다. 부대찌개 재료인 돼지고기와 김치, 라면, 양파, 파 등의 그림을 박 작가가 그리고 그 그림을 가져간 사람들이 물건으로 바꿔와 부대찌개를 만드는 퍼포먼스다.

박 작가는 오후 4시부터 어렵게 모은 재료들을 모아 직접 부대찌개를 끓여 인근 어르신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대접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인 부대찌개는 ‘마법의 수프’ 같았다. 부대찌개를 먹으며 동네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부대찌개 퍼포먼스는 청년 예술가들이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퍼포먼스가 이뤄진 공간은 ‘수봉다방’이다. 간판만 보고 진짜 다방인줄 알고 차마시러 들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수봉다방은 문화 사랑방이자 마을 공동체를 위한 소통공간이다. 딱히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난로와 차가 있는 이곳에서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하며 마을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수봉다방엔 청년작가들의 아기자기한 그림과 설치 미술이 전시되어 있다. 주민들은 무료로 커피도 마시면서, 미술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수봉다방이 위치한 남구 송의동 수봉영산마을은 인천 구도심 중의 구도심이다. 마을은 2006년 이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빈집이 여럿 된다. 수봉다방이 들어서 있는 곳도 ‘경기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30대 젊은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였다. 슈퍼마켓 운영이 안 되자 젊은 부부는 떠났고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와 비행청소년의 아지트가 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 ‘그린빌라’ 입주작가인 박혜민, 정미타, 김보리 작가 3명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구가 이 집을 매입하면서 성사됐다. 작가들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빈집의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했고,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박혜민 작가에 이어 김가람(30) 작가는 ‘무료헤어커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 작가는 이 퍼포먼스를 위해 일부로 미용기술을 배웠다. 김 작가가 선보일 헤어커트 퍼포먼스는 ‘에볼라 확산 방지’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기획했다. 다른 작가들은 수봉다방에서 방학을 맞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봉다방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단기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의 생각, 예술가들의 의견을 모아 수봉다방의 다음 용도가 결정된다.

인천의 또 다른 레지던시 공간

청년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그린빌라’

남구 송의동 새천년로 5번길에 위치한 ‘그린빌라’는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공간이다. 2014년 1월부터 운영했고, 현재 11여 명의 작가들이 들어와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작가들의 장르도 다양하다. 그린빌라를 운영하는 남구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린빌라 입주작가들은 매월 작가들끼리 워크숍을 열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송의 평화시장 창작공간

올해부터 남구 송의동 평화시장이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변한다. 서울의 철공소거리였던 문래동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된 것처럼 평화시장을 예술가, 문화기획자, 청년 기업가 유치와 창작, 체험, 행사 등의 공간으로 재생한다. 이곳은 마을사랑방, 이야기가게, 연습실 운영, 창작·마을공간이 들어서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장이 된다.

평화시장 창작공간은 1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뒤 6월 입주할 예정이다. 평화시장은 남구의 대표적 종합시장이었으나 2000년 대 이후 개발에 밀리고 구도심에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금은 장사하는 가게가 몇 곳 밖에 안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의 대표적인 예술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도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들에게 스튜디오 및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뷰전, 창작지원, 오픈스튜디오&페스티벌, 결과보고전시회로 진행된다. 올해 입주작가 모집은 40팀으로 공연예술 분야 10팀, 시각예술 26팀, 문학창작 및 비평 4팀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개국 194팀의 작가가 참여했다. 올해 주요 전시로는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6기 입주작가 브리뷰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6기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전’을 각각 열 예정이다.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은 2012년부터 백령도와 서해5도 지역을 배경으로 다양한 예술담론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창작거점인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작가들에게 스튜디오 및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원탁’에서 마주보고 공감하다

인천시민 원탁토론이 ‘민선 6기 공약, 시민과의 약속’을 주제로 시민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8일 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민선 6기 공약의 실천 계획에 귀 기울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었다. 민선 6기 공약 가운데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실천과제는 단연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시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시민의 의견을 향후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뜻으로 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시 대변인실



“300만 인천시민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시장과 시민, 원탁에 둘러앉다

“300만 인천시민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시민과의 약속’을 주제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민이 원탁에 마주보며 둘러앉았다. ‘인천시민 원탁토론’이 각계각층의 시민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8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며 민선 6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유 시장이 직접 주제한 이번 토론회는 민선 6기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정운영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발표와 청취로 진행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대화를 통해 직접 시정운영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10여 명씩 30개의 테이블에서 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 시장은 6·4지방선거 때 발표한 100대 공약과 지역 공약에 시민점검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로 공약을 세우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공약의 핵심 5대 가치는 ▲인천 KTX 시대의 개막, 인천 중심의 입체교통망 완성 ▲인천의 가치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교육·안전 일류도시, 300만 시민이 최우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부채다운·부패아웃·부실스톱 등이다.

시민의 목소리, 공약에 담는다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친 결과,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공약 실천과제는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로 나타났다. ‘원도심 맞춤형 개발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제 관련 공약이 전체 공약의 36%를 차지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경제개발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인천 철도망 혁신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의 전환 등이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과제로 꼽혔다. 두 번째 토론의 소주제인 ‘내가 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경제(부채탕감, 원도심 개발, 경기장 매각 등) ▲교육(예산확보, 특성화고교 개설, 무상급식 등) ▲복지(소외계층 도움 및 여건개선,

체육시설 증대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문화이미지 향상, 문화회관 지원 등) ▲주민자치, 참여(소통강화, 현장중심 행정, 주민참여예산 등)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인천 출신 사람을 인천지역 기업체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색적인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300만 시민과 함께 할 인천의 미래

유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은 300만 인천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추진방안, 소요재원 등을 반영해 실천계획을 탄탄히 수립했다.”며,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일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는 이번 원탁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완성도 높게 실천하겠다는 포부다. 2014년 7월 1일, 인천시 민선 6기가 원대한 비전을 품고 더 큰 세상으로 뜻을 올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인천의 꿈’을 완성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인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원탁에 올라 왔습니다

■ 시민이 생각하는 우선 실천 공약 순위

순위	내용	득표율
1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21%
2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	15%
3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10%
4	인천 철도망 혁신	8%
5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 전환	6%
6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강화	5%
7	인천 도로망 혁신	4%
8	인천 항만 혁신	4%
9	인천형 복지 시스템 구축	4%
10	여성이 행복한 도시	4%

■ 내가 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순위	내용	득표율
1	경제(부채탕감, 원도심 개발, 경기장 매각)	42%
2	교육(예산확보, 특성화고교 개설, 무상급식 등)	15%
3	복지(소외계층 도움 및 여건 개선, 체육시설 증대)	10%
4	문화(관광자원 개발, 문화이미지 향상, 문화회관 지원)	8%
5	주민자치, 참여(소통강화, 현장중심 행정, 주민참여 예산)	6%
6	교통(체계개선, GTX개발, 주차장 확충)	6%
7	일자리	5%
8	도시개발	5%
9	환경	2%
10	주거	1%

문의 : 시 소통기획관 440-2183



그림 이공명 경인일보 화백

먼저, 교육분야 !

세계를 호령할 인재를 육성하라!!!

인천시 인재육성재단이 인재육성장학금을 상위 3%에서 4%로 작년 50%에서 77%로...

드림·희망장학금은 50%에서 70%로 문을 넓힌다.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타겠는걸?

와우~

또한 멘토링 4개 대학 멘토수를 1천200명으로 늘리고...

교과목, 진로탐색,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을 지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entor

그리고 인천 내 두번째 자율형 사립고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인천거주 학생 대상 8개학급 240명

두 번째 일자리 분야 !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구~

주5일 5시간 근무기간 3개월 1일 3만 5천원

참여자적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재산 1억 3천 500 이하

세 번째 사회복지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뿐만 아니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흡연할 수 없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전자담배는 괜찮은 거죠?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담배와 똑같이 과태료 10만원

업주가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됨

1차	2차	5차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과태료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수당 1만원 인상!!!

등록경증장애인 중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대상은요?

단가 일반수급자 : 4만원 차상위계층 : 4만원 기초수급(보장시설) : 2만원

다음은 가족의 자살로 인한 심적 고통치유

흑흑

정신적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게 돕겠습니다.

애도상담 심리상담 심층상담 치료비지원 자조상담

정수

유가족대상 힐링 프로그램운영

여성가족 분야 !

양육비 3만원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입양가정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원

사랑한다

생활·민원 환경 분야

재외국민 주민등록 가능하던데요?

30일 이상 거주할 거예요.

즐거운 한국생활 되세요.

발급 가능



모든 음식점에선 금연! 지하 역세권 안전 강화!

2015 인천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업을 펼친다. 장애수당을 늘리고, 교육기반을 확충하며,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한다. 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5 올미년 시민생활과 관련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장외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교육

장학금 수혜대상 멘토링 사업 확대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이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장학금 수혜대상과, 멘토링 대상 학생수를 늘린다.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도 작년 전체 상위 3%에서 상위 4%로, 드림·희망 장학금은 작년 50%에서 77%로 성적 범위를 넓혔다. 멘토링 참여 대학도 4개 대학으로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이고, 멘토 학생 수는 1천200명으로 늘었다.

송도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3월 개교한다. 입학 전형은 2015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8학급 240명 규모로 선발했다. 포스코고등학교는 인천 내에 설립된 두 번째 자율형사립고다.

일자리 창출 분야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바뀔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근무조건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근무조건은 주5일 5시간, 근무기간은 3개월, 임금은 1일 2만7천900원으로 조정되고 참여자격은 각 단계별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인천시 시민으로 재산은 1억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사업 등이 일자리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 분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피면 안돼요!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이 추진된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3월까지 금연단속과 홍보를 함께 해나갈 방침이다. 음식점 업주가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경증장애인(3~6급)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단가는 기초수급자(일반재가) 4만원, 차상위계층 4만원, 기초수급(보장시설) 2만원이다.

자살로 인한 심리치유 ‘마음안아주기’
가족이 자살로 사망했을 때 느끼는 심적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자살자 유가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애도상담, 심리집단치료, 심층면담, 치료비지원, 자조모임 등이 진행된다. 유가족에게는 애도비와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적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면허 취득일로 미용사 업무범위 달라져요
미용사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업무범위가 달라진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제외된다.

여성가족 분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수당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금액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 5천400명이다.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만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양육 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거주지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면 된다.

생활·민원·환경 분야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과 협력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에 민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개방 표준화를 실시, 데이터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 국민, 공공기관이 상생 할 수 있게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하세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귀국 후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이 없던 사람은 귀국 후 최초 등록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앞면 명칭 하단에 재외국민임을 표시한다.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올 7월 1일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에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부담완화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법안이 7월 1일 시행예정이므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된 부담금은 9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대로 부과한다.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늘린다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및 권역이 변경된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경보시행 농도는 미세먼지 PM-10과 PM-25로 나눠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더 세밀하게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썼고, 발령권역도 해당구, 서부, 영종, 동남부, 강화로 늘렸다.

교통, 건축, 주택관리 분야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도심지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기준은 주택 규모 85㎡당 1대 이상, 70㎡당 1대 이상이다.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하되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에는 0.7대 이상이다.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도움을 줄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한다. 위치는 운북동 금산 IC부근으로 역사 1개소, 승강장 및 남측 연결통로 1개소의 시설을 갖춘다. 개통일은 미정이고, 공항철도 노선은 서울역~공덕역~홍대입구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김포공항역~계양역~검암역~청라역~영종역~운서역~공항화물청사역~인천국제공항역이다.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복선전철 개통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구간에 송도~인천에 4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이는 인천 도시철도 및 경인선, 신안산선과의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도권 서남부 활성화 및 도시철도망 형성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위치는 송도역~인천역으로 7.4km 구간이다. 새로 들어설 수인선 노선 역명은 가칭 용현역~남부역~국제여객터미널역~인천역 등으로 명명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의료기관 검진비 할인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진다. 금년부터는 의료기관 종합검진비가 할인이 추가로 더해진다. 인천의료원, 건강관리협회는 10%, 인천백병원 30%, 한림병원, 성민병원은 50%가 할인된다. 범위는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고, 할인쿠폰과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하면 된다. 그 외 혜택으로는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대중교통요금 최고 7%할인, SK에너지 주유시 최고 120포인트 적립,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가 할인된다.

안전 분야

어린이 교통, 여성 발길 생활안전지도에 맡기세요
남구지역에만 제공하던 생활안전 지도가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제공정보는 교통, 재난, 맞춤형 안전 분야, 어린이 교통, 여성 발길 안전 등이다. 생활안전지도란 시민생활 전반에서 안전확보에 필요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지도로 제작하여 인터넷(2D, 3D)과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공개하는 지도 서비스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www.safemap.go.kr), 모바일(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생활안전지도를 검색한다.

지하 역세권에 안전관리 강화
부평역 등 지하로 연계된 다중이용 시설에 신개념 유무선 기술을 융합한 재난·안전 통합 예·경보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된다.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됐다.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 시스템은 화재 등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실시간 대피경보·방송, 관리자·점주 실시간 문자, 전송·훈련 등 재난대응 정예화, 재난 대응기관 신속한 출동발령, 소방·환송 등 안전한 지하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거대한 성채와 넓은 광장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밭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나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풍경은 사뭇 달랐다. 올 한 해 까치밭로 인천 전역을 누벼 본다.



까치밭을 든 지점 → 동인천역사 빌딩

수년 째 거의 빈 건물로 방치돼 있는 이 건물은 한때 인천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1층에 역무시설이 있고 3,4층에 경륜과 경정(모니터)경기장이 있을 뿐이다. 6층 높이의 옥상에서 남쪽 송현동과 송림동을 바라보며 와이드로 촬영을 했다.



경인철도는 동인천역 지역을 두 동강 냈다. 대한서림이 있는 인현동 쪽과 수도국산으로 향하는 송현동 쪽으로 확연히 나뉜다. 시민들은 인현동 방면을 흔히 동인천 ‘앞쪽’이라고 불렀고 송현동 방면을 ‘뒷쪽’이라고 했다. 이것은 순전히 역 개찰구 방향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오랫동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렇게 ‘뒤편’ 역할을 했던 송현동 쪽이 이제는 ‘앞편’이 되었다. 수도국산에 커다란 성채가 세워지고 역 북쪽에 넓은 광장이 생기면서 100여 년 만에 앞뒤가 ‘확’ 바뀐 것이다.

① 수도국산(솔빛아파트)

수도국산의 원래 이름은 송림산(松林山) 혹은 만수산(萬壽山)이었다. 일제는 1910년 이 산의 꼭대기에 노랑진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를 만들었다. 이 배수지를 관할하는 수도국이 생기면서 이 산은 ‘수도국산’으로 불리었다. 181천818㎡(5만5천평)에 1천8백 채의 고방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섰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달동네 수도국산은 1998년부터 재개발되었다. 그 자리에 3천 가구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솔빛마을이 들어섰다. 배수지 공간은 그대로 살려두고 공원으로 조성했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살림살이들은 2005년에 개관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에 남겨졌다.

② 송현시장

1960년대 초에 개설한 송현시장은 2008년 6월 문화관광부 등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인근에 골목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대 달동네였던 곳을 추억할 수 있는 수도국산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안에는 옛 향수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빨래터와 펄프장 등을 복원해놓았다. 시장에서 수도국산 오르는 골목에 ‘해방우물’ 기념석이 세워져 있다.

③ (구)오성극장

주로 한국영화를 상영했던 오성극장은 씨네팝, 애관2관으로 이름을 바꾸며 운영되다가 2003년 4월 11일에 스크린을 내렸다. 현재 재난위험시설(D)급으로 지정돼 철거 위기에 놓인 건물이다.

④ 양키시장

송현동 100번지에 있는 양키시장의 정식 이름은 ‘송현자유시장’이다. 1965년 12월 정식으로 시장 등록이 되었다. 한때 미군부대 뒷문으로 흘러나온 양주나 양담배, 향수, 로션, 초콜릿, 스낵, 통조림 등 양키물건들이 이곳에서 은밀하게 거래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군 양키들에게 나오지 않고 남대문시장 중간도매상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들이 이곳에 공급된다.

미림극장



수도국산박물관

(구)오성극장



순대골목

⑤ 중앙시장

1935년 무렵 동인천역 부근에 벌집 모양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현 중앙시장 인근 개천가에 야(夜)시장이 운영되면서 오늘날의 이 시장터가 놓였다. 1949년 송현동을 비롯해 전동, 송의동, 도원동 등 각처의 노점 자유상인들이 결성한 소성자유시장자치회가 합동하여 지금의 ‘중앙시장’이 발족되었다. 개천을 복개한 후 건물을 지어 시장을 만들고 갑, 을, 병 지구로 나누었다. 현재 시장은 크게 혼수상가, 그릇상가, 양키시장, 수선골목 등으로 섹터가 나뉘었다.

⑥ 미림극장

1957년 11월 중앙시장 진입로에 천막을 세워 ‘평화극장’이란 이름으로 무성영화를 상영하면서 시작되었다. 6,70년대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남진과 나훈아 등의 리사이틀무대이기도 했다. 지난 2004년 7월 29일 영화 ‘투가이즈’를 끝으로 문을 닫은 미림은 2013년 10월 2일 250석 규모의 ‘실버전용극장’으로 리모델링해 다시 개관했다.

⑦ 순대골목

순대골목의 뿌리는 30여 전의 수문통 시장이다. 수문통 시장이 헐리면서 국밥집들이 현재의 자리로 이주해오고 기존에 있던 몇몇 국밥집들과 합쳐지면서 순대골목이 되었다. 현재 송의동에서 이화순대와 함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시정순대도 여기서 시작했다. 이 순대골목은 지난 1997년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됐다.



양키시장



옛 수문통 시장과 수도국산 그리고 중앙교회



중앙시장

⑧ 동인천역 북광장

동인천역사가 생기기 전에는 인현동 방면의 남쪽에 커다란 동인천역 광장이 있었다. 민자 역사가 들어서면서 광장은 사라졌고 대신 2011년부터 반대편의 송현동 쪽에 북광장이 조성되었다. 북광장이 생기면서 순대골목 한쪽과 인천에서 오랫동안 유명했던 탈실 가게들이 사라졌다.

⑨ 수문통

현재의 화평치안센터와 송현치안센터 사이, 약 200m 거리에는 ‘수문통’이라 불린 갯골 수로가 있었다. 물때 따라 작은 돛단배가 수문통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지대가 낮아 인근 동네의 온갖 생활하수가 이곳으로 다 흘러들었다. 동네사람들은 이 수문통을 ‘세느강’이라고 불렀다. 화평동 쪽 끝자락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수상가옥이라 할 수 있는 수문통시장이 1962년 9월 1일에 개장했다. 슬레이트 지붕에 판자벽을 한 이 시장의 건물은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인 일종의 주상복합이었다.

⑩ 인천중앙교회

인천 동구에는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했다. 특히 황해도 출신이 많았는데 북한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 1951년에 세운 교회가 황해노회 소속의 인천중앙장로교회다.

⑪ 현대제철

송현동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중후장대한 공장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제철이다. 1941년에 설립돼 요철을 생산했던 조선이연금속은 해방 후 조업이 중단되었다가 대한중공업으로 재가동되었고 인천제철로 이어졌다. 이후 인천제철은 1978년 4월 현대그룹으로 흡수되었고 ‘현대제철’로 그 이름이 바뀐다.



새해맞이 풍류 즐기기, 우리 가락 매력에 흠뻑!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가꾸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ée Concert)다. 특히, 전석 1만5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2015년 '커피콘서트'의 첫 무대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등 여덟 명의 연주자가 모인 국악양상블 '불세출'이 거친 시나위의 감성을 펼친다. 멤버 전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신인 이들은 민요, 산조 등 전통음악의 고유성과 즉흥을 기반으로 오늘의 감성에 맞는 음악을 들려준다.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만큼 뛰어난'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음악적 개성으로 빛어진 아름다운 소리를 즐길 수 있다.

불세출의 도시풍류

일시 : 1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5천원

문의 : ☎1588-2341



팝피아니스트 윤한, 새로운 감성의 재즈콘서트

페스티벌 초청 및 각종 브랜드 확보 촬영, 방송 출연 등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팝피아니스트 윤한이 새해를 맞아 인천관객들을 만난다.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공연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Frank Churchill)', 'I'll be seeing you(Sammy Fain)' 등 직접 편곡한 재즈 명곡을 비롯해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트럼펫의 풍부한 소울 재즈 스탠다드로 프로그램을 구성, 지금까지의 공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음악적 진지함을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채를 분명하게 보이겠다고 말하는 윤한. 진지하고 솔직한 감성으로 음악을 대면하는 그의 속내를 깊이 있게 담아 윤한이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재발견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한 음악을 통해 들려줄 윤한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윤한 콘서트 'New Year's Party'

일정 : 1월 24일(토) 오후 7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3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모던록의 걸작, 몽니

매력적인 밴드들의 음악을 작은 소공연장에 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밴드데이'의 1월 무대는 '몽니'가 함께한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 탄탄한 연주력, 뚜렷한 개성을 지닌 멤버들 간의 끈끈한 호흡을 자랑하는 몽니는 강렬한 사운드와 대조되는 부드럽고 따뜻한 노랫말로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한 감성 록밴드다. 애절한 사랑이야기부터 다양한 일상의 감정까지, 각양각색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몽니의 노래는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품어 듣는 이를 더욱 즐겁게 한다. 특히 '미친 성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보컬 김신익의 시원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음악에 관한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함께한 11년의 시간만큼 잘 짜인 밴드사운드가 몽니의 내공을 여실히 보여준다.

밴드데이X. 몽니

일시 : 1월 23일(금) 오후 8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 ☎1588-2341



1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한요'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1만5천원

☎580-1135

17 뽀로로 드림콘서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5천원

☎1566-6551

18 뽀로로 드림콘서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5천원

☎1566-6551

21 2015 커피콘서트 I '불세출의 도시풍류'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580-1135

22 신년음악회 '빈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소래극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453-5710

2015 부평아트센터 신년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시아장석 2만원

☎500-2000

23 밴드데이X. 몽니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2만원

☎1588-2341

24 윤한콘서트 'New Year's Party'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3만원

☎1588-2341

25 가족뮤지컬 '보물섬'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070-5017-1551

28 구강교육 뮤지컬 '딩동이 치카푸카'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1만5천원

☎580-1135

30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처'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31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처'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문화예술공연 정보가 한눈에... '아이~큐!'

인천지역 문화예술 공연·전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아이~큐'가 이달부터 운영된다. '아이~큐'에서는 인천지역 공연장·전시장·도서관·박물관·영화관 등 730여개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행사·공연·전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앱을 내려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큐' 앱 개발 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 3.0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에는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인천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홍보대사 기능을 발휘하기도 했다.

문의 : 문화예술과 ☎440-4013



음력설 쇠지 않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편집장

노점 요식업 영업 잠정 허용

6·25 전쟁으로 파괴된 집 터와 도로변에 임시로 노점을 짓고 요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노점주들에게 도시 미관상 및 교통 불편과 위생 저해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이를 철폐 시키고자 일제의 허가를 건어들이기로 되었는데 노점업자들의 생활유지와 자력가동력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 허가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되었다. 전시 생활 개선법 및 양곡소비절약 위반자들을 포함한 일반 노점주들도 위생시설과 양곡소비절약에 유의하여 요식업 폐지 기간까지 용인하리라 한다. (1953년 1월 31일자)



가공탄 배급, 각 동에 구매권 배정

긴박한 연료사정에 비춰 인천시에서는 시내 14개소의 연탄 가공 공장에 배당되는 가공용 무연탄을 각 동별로 지정하여 가공된 19공탄과 ‘마세크’탄을 각 가정에 할당배급키로 업자들과 합의를 보아 12월분 배당분부터는 이를 실시하리라고 한다. 그래서 제한된 가공품을 골고루 나눠 떼기 위해 구매량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1세대당 1개월에 19공탄 10개와 마세크 2상자씩 제한하고 있다하며 이것은 각 동별로 구매권을 할당하리라고 한다. 배급 가격은 19공탄은 1개당 20환이며 마세크탄은 1 상자에 195환이라고 한다. (1954년 1월 6일자)

절전 위해 등수(燈數) 제한

긴박한 전력 사정에 비춰 시 당국은 긴급 불가결한 중요 기관과 일반 가정의 야간 전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합리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실천사항을 보면 일반 가정의 전등 시간인 17시부터 23시까지는 당국에서 지시한 특수 수용가라도 일체 동력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 곤로 및 전기다리미 등 전열기구는 각 반 책임 하에 절대

로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주야간 전등은 당국에서 지정한 대상자 외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등의 축광 제한도 일반 가정에는 30와트이며 관공서 및 점포 건물에는 60와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등 등 수에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시민 각자가 이와같이 절전에 협조함으로써 일반가정에 송전이 가능하리라고 한다.

(1954년 1월 13일자)

연수동 요양원에 담요 배급

인천시 사회과에서는 시외 연수동 소재 인천적십자 요양원에 수용 중인 200여 고아들의 난방시설을 위해 상부와 수차 절충한 바 이번 UN 구호물자로 담요 200매를 배급하기로 되었다. 이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부모 그리움에 눈물겨운 요양원 생활을 계속하는 어린이들에 기쁜 소식인 것이다.(1955년 1월 15일자)

음력 설 쇠지 않기를(시장 신년 담화문 중)

누차 강조한 바이지만 전 시민은 문화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음력설을 쇠지 않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차례가 있어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을 지 모르나 차례도 양력으로 하면 될 것이며 동네 사람이 음력 설을 쇠니까 나도 음력설을 쇠는다는 남을 따라 하는 정신은 버리는 것이 본인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니 일반 시민은 문화시민의 정신을 발휘하여 음력설을 폐지하는데 노력하여 타 시군의 시범이 되기를 재삼 바란다.(1955년 1월 22일자)

인천 인구 37만 7천여 명

작년 9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 1회 간이 총인구 조사 결과의 일부분이 지난 23일 내무부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된 우리나라 총인구는 2천152만6천374명인데 이중 남자가 여자보다 7천180명이 더 많다고 한다. 인천시민은 총 가구수 6만311호에 남자 15만97명과 여자 15만8천219명 그리고 외국인은 3천105명으로 인천의 총 인구는 31만1천421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숫자는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경찰서 유치장 및 형무소에 수감 중인 죄수를 제외한 숫자다.

(1956년 1월 25일자)



1956년 1월 2일자에 실린 남세 계몽 만화

市 새해 예산 7조7천645억 확정

올해 우리시 예산안은 7조7천645억 여원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01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시가 제출한 요구안인 7조7천648억원보다 3억원 감액된 7조7천645억7175만원으로 의결했다.

분야별로 보면, 세입분야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사용료 수입 50억원은 징수 가능성 및 예산편성권 문제 등에 대한 논의 끝에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세입예산은 총 3억원을 감액했다. 세출분야에선 해당 상임위가 감액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40억원 중 필수경비 40억원을 되살렸고, 신규 개관 예정인 도서관 3개소의 개관비 12억원 등 총 38억7천 여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또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비 20억원 중 7억원 등 32억400만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고, 민간경상보조금 36억6천800만원 등 총 84억4천132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했다. 세출예산 증감액으로 발생한 일반회계 8천891만원과 특별회계 22억1천492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해 세출예산 총규모도 7조7천645억 7천175만5천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우리시는 올해 2조85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국비 확보 목표액(2조38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확보액(2조213억원)보다 640억원 많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천802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동 연장 사업비 483억원,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비 400억원,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187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비 115억원,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5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비 44억원, 강화북단 대산~당산간 해안도로 사업비 40억원 등이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미반영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 예산담당관 ☎440-2242

상수도본부, 기업 슬러지 활용 기술개발 협약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수돗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슬러지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을 위해 인하대, (주)제이에스엠, 케이에스피와 함께 산·학·관 공동 기술개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2만 이상 발생하는 정수 슬러지는 폐기물로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매립 처리되고 있지만, 상수도 사업본부는 슬러지의 잠재적 자원화 가치를 고려해 친환경 건축 자재 제품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신소재로 개발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슬러지 가공 전문기업인 제이에스엠이 신소재를 개발하고 케이에스피는 타일과 친환경 건축자재 등 제품을 개발한다. 인하대는 신소재 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142

소상공인 경영대상 신설, 올해부터 포상

우리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신설, 포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시청에서 신한은행, 경기일보 인천본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시는 음식점·도소매업·제조건설업·운수업·공중위생업·지하도상가·전통시장 등 7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영개선 등의 공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1명씩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생활경제과 ☎440-4212

강화 교동도에도 수도권환승할인제 도입

교동도에 조만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된다. 강화군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업체인 이비카드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교동면에 수도권환승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륙교 개통 이후 시내버스 1개 노선(18번)이 본섬과 교동도를 오가고 있으며, 교동도 안에서는 연륙교 개통 이전부터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버스 요금은 성인 현금 지불 기준 현행 1천원에서 1천300원(카드 1천100원)으로 조정된다.

문의 : 강화군청 ☎930-336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군·구와 함께 추진

우리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업무를 각 군·구와 통합해 추진한다. 이번 시책은 군·구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수혜를 없애고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여 수요가 많은 남동구·부평구·서구·남구·동구·강화군 등 6개 군·구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관내 업체의 해외전시회 참여 때 부스 임차료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총 사업비 2억8천900만원으로 68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440-4283

무공수훈자 공적비 수봉공원에 건립



우리시는 무공수훈자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고, 지난해 12월 8일 수봉공원에서 제막식을 열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높이 10m 규모의 공적비 1식과 무공수훈자 3천561명의 존함이 새겨진 명각비 3식, 청동 군인상 3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명각비에는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및 경찰의 존함이 새겨져 그 뜻을 더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72

유정복 시장의 인사혁신 호응

우리시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인사예고제를 시행했다. 인사예고제는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부에선 인사권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예고제와 더불어 희망보직제도 확대 시행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사안 예고제와 희망 보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이번 혁신을 시발점으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문의 : 시 총무과 ☎ 440-2511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탄력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 부지인 남동구 남촌동 177의1 17만3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2018년까지 남촌동으로 이전한다. 새로 조성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시설, 중·도매인 점포, 저온처리장 등을 갖춰 인천 남부권역과 경기 시흥·광명 지역을 아우르는 중추적인 농식품 도매유통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구월동 농산물시장 터는 롯데그룹 주도 아래 2017년까지 대규모 쇼핑·문화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문의 : 농축산유통과 ☎440-4397, 도시계획과 ☎440-4632

인천가족공원 신규 봉안당 이름 ‘평온당’



인천가족공원 신규 봉안당의 이름이 ‘평온당’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공모에서 접수한 명칭 126건 중 평온당을 신규 봉안당의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넓이 5천425㎡ 규모의 평온당은 안치 기수가 3만5천584기로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중 최대 규모다. 인천가족공원에는 현재 만월당, 추모의 집, 금마총 등 3개 봉안당이 조성돼 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33

팽이부리마을 민·관 합작 ‘김치공장’ 창업

만석동 팽이부리마을에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설립한 김치공장이 들어섰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19일 팽이부리마을에서 팽이부리마을 주민 등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공장 창업식을 가졌다. ‘해맑은 김치공장’은 팽이부리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지역 기업, 주민이 함께 운영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억원을 들여 김치공장을 지은 뒤 구에 기부했으며, 동구는 팽이부리마을 주민을 위해 공장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김치공장은 374.2㎡의 면적에 김치생산 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마을 주민인 직원 7명이 하루 평균 2t의 김치를 생산할 예정이다.

문의 : 동구청 ☎770-669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평가 전국 1위

우리시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검정고시·대안학교 등 학업 복귀를 돕고 자격증 취득, 취업훈련 등 자립 지원을 도운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에서 운영해 온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올해부터는 8개 구 9개 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2854

2015 한강수계기금 44억원 최종 확보

우리시가 2015년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44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일부를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다. 시는 매년 물 이용부담금으로 연간 500억원을 납부하지만 상수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부당하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시는 확보한 기금 44억원을 포함, 2018년까지 총 1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굴포천 유지 용수 공급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수질환경과 ☎440-3602

2014 주거복지정책 최우수 기관 선정



우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4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광역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거급여 실시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주거급여 시범사업에서 9천630가구에 19억원을 지원해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으며, 인천형 주택바우처사업을 통한 주거비 지원과 팽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번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440-4742

OCA 사무국장에 ‘명예시민증’ 수여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17일 후세인 알 무살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국장에게 명예 인천시민증을 수여했다. 쿠웨이트 국적의 후세인 국장은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와 북한 선수단 참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시민이 됐다. 후세인 국장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스포츠관리학을 전공하고 쿠웨이트 국가대표 수영선수과 수영연맹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인천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은 2000년 3월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 파나마 시장 이후 현재까지 모두 27명에게 수여됐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3



‘전쟁 유물 한자리에’ 강화전쟁박물관 시범 개관

강화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강화전쟁박물관을 시범 개관한다. 강화전쟁박물관은 강화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화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주제로 전쟁 유물 366점

을 전시한다. 역사 관련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복합영상장치, 실물모형 등도 준비했다. 박물관은 갑곶돈대 내 기존 강화역사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규모는 연면적 680㎡, 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문의 : 강화박물관 ☎930-3627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신용카드 결제 시행

남동구는 인천지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오는 2월부터는 온라인에서 프로그램 신청과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결제시스템도 구축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카드사별 다른 수수료 적용으로 인한 복잡한 정산문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해 왔다.

문의 : 남동구청 ☎453-2232

유정복 시장, 좋은 자치단체장에 선정



유정복 시장이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좋은 자치단체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해 12월 10일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시민사회단체 송년회 및 후원회 밤’에서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애써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유정복 시장을 선정해 ‘좋은 자치단체장’ 상을 시상했다. 이번 ‘좋은 자치단체장’은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과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지, 청렴한 공직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모범을 보였는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해 선정했다.

문의 : 대변인실 ☎440-3094

일본 투자 자동차부품 회사 송도 ‘오픈’

일본 파이오락스(PIOLAX)사가 출자한 파이오락스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R&D 시설이 지난해 12월 17일 송도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있는 파

이오락스는 일본 파이오락스사로부터 미화 1천만달러를 도입해 연면적 7천600㎡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R&D 시설을 건립했다. 파이오락스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중국과 인도에서 개폐기구 부품에 대한 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설비를 증설해 경쟁력 및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진출했다. 향후 파이오락스는 제조, 연구 등 신규인력 140여 명을 채용하고 2018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82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개관



인천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가 지난해 12월 18일 송도애니오션빌딩 12층에서 문을 열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하는 SW융합클러스터 주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뒤 센터를 개관하게 됐다. 송도센터는 앞으로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SW융합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창업 컨설팅, SW융합 연구개발, 융합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조사 등 국제 마케팅 등이 주요 지원 사업이다.

문의 :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440-3278

재개발 등 정비사업 행정지원 자문단 운영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행정지원 자문단’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문단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3인, 예산·회계분야 자문을 위한 공인

회계사 3인 등 총 6명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합동대책회의, 주민설명회, 조합 등 운영실태 점검에 참석하여 상담이나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주거환경정책과 ☎440-2545

‘의원연구단체운영
심사위원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내년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시 관광산업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재원 확보, 관광자원 개발, 관광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관광발전 전략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정책의 성과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의제가 필히 관광정책에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연구활동을 통해 발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의 승인으로 의원연구단체는 내년 11월 말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정실에서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을 갖고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결핵퇴치를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2014년 크리스마스 썰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자연을 돌아 보는 의미에서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고유동식물’ 20종을 소재로 올해의 썰로 발행했다. 노경수 의장은 “크리스마스 썰 모금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불우결핵환자 지원 등 각종 모금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안전한 인천,
편안한 시민 위한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안전한 인천, 편안한 시민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전찬기 인천대

교수는 ‘재난에 노출된 사회, 인천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먼저 재해와 재난의 유형을 설명하고, 향후 재난예방 대책과 함께 인천의 안전관리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특위 허준 부위원장은 ‘안전한 인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주제로 ‘안전 예산 비중확대’, ‘재난 안전체험관 건립 활성화’, 안전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등 7가지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인천 사립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사립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위원,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인천 사립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현재의 사립학교 관련 정책을 설명하였고,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연합회 회장은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전 재산을 출연하여 사립학교를 세워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일부 이사장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여 대통령 표창

이도형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송도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 회의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2010년부터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평소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북한 어린이 유유지원사업 및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 안보역량 강화와 지역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앞장서 왔다.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무료급식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주안역 남광장에서 약 500여 명의 노숙인, 노인 등에게 이선구 목사 등 사랑의 밥차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하며 추운 날씨에 이웃들과 고통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식사하시는 분들을 한분한분 위로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한다.”며, “나눔은 마음이 먼저이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손과 발이 먼저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예산안 의결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2015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9%(727억원) 감소한 7조7천645억 여원으로 의결했다. 시가 제출한 예산요구안(7조7천648억7천만원)에서는 3억원 감액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4조9천774억 여원, 특별회계는 2조7천871억 여원이다. 올해 시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8조1천611억 여원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지난달 지급 중단됐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비 10억4천만원이 증액됐다.

십정2지구 동절기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인천시 배국환 정부부시장과 함께 동절기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십정2지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십정2지구는 지난 1995년 정부가 무허가 불량주택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주택공사(현 LH)가 과다한 사업비를 이유로 1999년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가, 이후 2003년 지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추진하였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7년 10월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본격화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성 부족과 LH의 경영난으로 담보상태에 빠져있다 보니, 흙벽돌집들이 경사를 따라 늘어진 달동네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이 90%를 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붕괴 등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으나,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찾게 됐다.

시정 주요현장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시정 중요 현안사항의 효율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미단시티 개발지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검단신도시, 중앙대 인천캠퍼스 타운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총괄보고와 세부추진 사항 브리핑 이후 의원들의 질의 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경수 의장은 “시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투자 유치 여건을 성숙시키고 시와 시의회, 사업자가 한뜻으로 단결하여 추진하면 조속한 사업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 및 관련 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국 어선들은 최근 대규모 선단을 이루고 무기를 갖춰 더욱 대담하게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어민이 설치한 어구를 절취·훼손하고 치어까지 씹살이하는 등 불법조업의 행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증강하고 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대책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서해5도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업무는 국가사무인 점을 고려, 노후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웅진군의회도 이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겨울철 수도미터 동파, 동결 예방은 이렇게...

겨울엔 특히 12월부터 2월에 걸쳐서 수도미터 동파·동결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수도미터가 동파·동결 되면 물이 나오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수리비용도 많이 들기에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바로 확인

- 외관상 수도미터 보호통의 뚜껑 부분에 틈새가 있는지
- 보호통 내에 누수가 있거나 지하수 등으로 물이 고여 있는지
- 보호통 내에 보온재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 다세대, 빌라 등의 경우 건물 입구, 옥상 출입문은 닫혀 있는지
- 공사장, 공원, 옥외화장실 등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이 보온재로 덮여 있는지

조치는 이렇게

- 수도미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하여 찬 공기를 막는다.
- 수도미터 보호통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 보온을 위해 젖지 않게 비닐로 감싼 헌옷 등으로 채운다.
- 수도미터 보호통의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

대처는 이렇게

- 수도미터가 얼었을 때 헤어드라이기로 서서히 녹이거나 수건으로 수도관을 감고 위에 부터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인다.(토치 등으로 직접 불을 대면 파열이나 화재의 위험)
- 수도미터는 뜨거운 열을 가하면 파손이나 고장의 원인이 된다.
- 수도미터의 파손, 고장이나 공지 상에 설치된 보호통(뚜껑파손 등)이 불량 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문의 : 미추홀 콜센터 032)120,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

승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입주자 모집

남구는 승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승의문화마을 손손 손 프로젝트 2’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심있는 예술가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일정 : 1월 5일(월)~28일(수)

장소 : 승의평화시장 창작공간과 상인회 사무실, 남구청 소회의실

공모분야 : 예술창작, 문화예술 교육, 창업, 기타 창의적 활동을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 지원 가능)

문의 : 880-7978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주민대상 공장견학 시행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장견학을 시행하고 있다. 공장견학을 통해 회사의 안전·환경·보건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운영기간 : 2014년 11월~(매주 월·수·목 운영 예정)

운영시간 : 오후 2시~3시 30분

접수방법 : 570-5194(월~금 09:00~17:00)

※견학인원은 1회당 10명~20명

적십자 사랑의 회비 모금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사는 2015년 적십자 사랑의 회비를 모금한다. 사랑을 켜면 희망이 커진다.

모금기간 : 12월 1일~2015년 1월 31일

납부금액 : 대상별 납부권장금액 차등 고지

세대주(8천원 / 1만원 / 2만원), 개인 사업자(3~10만원),

영리 법인(5~70만원), 비영리 법인(5만원 이상)

납부방법

금융기관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 『입금전용 지정 계좌』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송금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납부

문의 : 810-1315~8

맞춤형 보육의 첫 걸음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첫 걸음인 시간제 보육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관심있는 가정의 참여 바란다.

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부모 : 기본형-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맞벌이형-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등 기타 양육부담 가구

지원시간-기본형 월 40시간, 맞벌이형 월 80시간

보육료 : 이용단가-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기본형) 정부지원 2천원, 본인부담 2천원

(맞벌이형)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 가능.

문의 : 1661-9361(www.childcare.go.kr)

독자가 꾸미는 인천 사는 이야기



장원

문학산에서 바라본 세상

문학산에 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보는 세상은

발 딛었고 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2015년 올 한 해도 희망 가득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한나 서구 가정로



시간이 멈추어 있는 교동도

교동대교가 놓였다고 해서, 지난 가을 강화

교동도로 온 가족이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교동도 대룡시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월을 거슬러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가

정감 있고 따뜻합니다.

이지은 남동구 담방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 혹은 인천에 관한 글(형식은 자유)을 써서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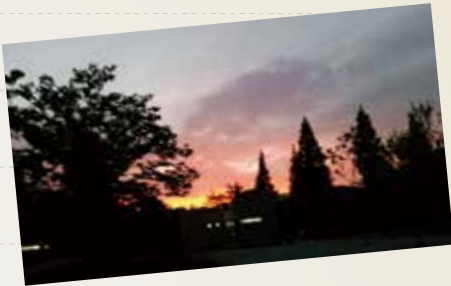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지는 해의 선물

집 근처 연수구 문남어린이공원을 지나치다.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는 해가 흘리는 노을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박은채 연수구 먼우금로

우리의 자랑, 인천대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를 지나가는 길. 그 장대한

위용에 가슴이 뻥뻥하다. 바다 위에

이토록 거대한 걸작을 만들어 낸

인천이 자랑스럽습니다.

채혜윤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영종도 바닷가 달리기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영종도 바닷가를

카트를 타고 달려 봅니다. 얼굴에 부딪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니, 일상을

벗어난 나들이가 더 특별하고 즐거워집니다.

권미애 동구 화수로

그 길의 교훈, ‘감사하라’

글 송진구 명품전략연구원 원장,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TV ‘뉴스 Y’의 5부작 다큐멘터리 ‘명사와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프로그램에 명사로 초청되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국경이 끝나고 스페인국경이 시작되는 지점인 론세스바예스에서부터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 땅끝,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있는 산티아고 성당까지 이어지는 800km의 길입니다. 1천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길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는 아름답리 나무가 뿔뿔한 숲, 코발트 빛 하늘, 아이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림 같은 뭉게구름,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일출과 일몰,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밀밭, 아무리 다가가도 더 멀어지는 지평선을 쫓아 하루에 25~35km씩, 6~9시간을 산티아고를 향해 끝없이 걷는 길입니다. 또한 물집이 터지고 염증이 시달리며 발톱이 빠지는 고통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얻으려고, 누구는 버리려고, 누구는 찾으려고, 누구는 잊으려고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됩니다. 마지막 목적지 산티아고 성당에 도착하면 순례자들은 광장에서 서로 부둥켜안거나, 광장 바닥에 누워서, 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뜨거운 울음을 터트립니

다. 자신이 순례길을 완주해냈다는 것을 느끼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았던 생각은 ‘감사하라’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건강함에 감사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신의 직장은 아니지만 출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간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순례길에서 감사함을 배웠기에 그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수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그 수도원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묵언을 지켜야만 하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에게 허용된 단 하나의 말, 바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사람은 한번은 죽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즐기면서 살 것을 권합니다. ‘메멘토 모리.’



몽(夢)땅 인천골목



福 받는 인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복(五福)을 빌고
성경에서는 팔복(八福)을 가르칩니다.
이 집 대문에는 아예 ‘多福(다복)’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식복, 장수복, 재물복, 명예복, 취업복, 입시복, 건강복, 애정복...
을미년 새해,
우리 인천으로 모든 복이 양떼처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동구 화수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